

고양시 내 의료클러스터 올해 착공

7월 초 예정 ... 한의학과 중심 강의동 및 산학협력관 2만m² 규모

우리대학이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준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기반작업으로, 의료클러스터가 우선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의료클러스터사업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최첨단 유망지역 선정'에 앞서,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핵심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로서의 기능성을 확보해두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의료클러스터 사업은 우리대학 소유인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부지의 16만 5천m² 중 2만 m²의 공간을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강의동과 산학협력관은 '3자 형태'의 건물로 지어지며, 같은 건물을 사용하되 공간을 분리하여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협력관 공간 내에는 작년 우리대학과 작년 산학협력 MOA를 체결하고 30억을 기부했던 (주)휴림바이오셀의 즐기세포은행 연구 공간도 마련된다. 현재 의료클러스터는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 말 시공입찰을 선정해 7월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개발본부 김규환 팀장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는 별도로, 의료클러스터 사업 단지를 조성해 연구시설과 학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의료클러스터 사업은 의생명과학캠퍼스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일 첨단 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식사·장항동 일대 100만m²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연구구역(25만m²), R&D 특성화 구역(10만m²) 등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신약개발과 임상, 의료기기 등 국제적 수준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2037년까지 총 5조 600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를 확정, 201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 유치 대상 지역 선정이 올 상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두고 고양시와 경쟁 중인 오산시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지난 10월 MOU를 체결했다. 서울대는 오산시 내 서울대치과병원 전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치료센터, 치과 R&D센터, 교수연수센터 등을 포함해 특수병상까지 모두 700억원 규모의 병원 설립을 예정 중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타대학의 유치 전략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대학측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선정 기준 및 일정공고를 늦추고 있어 6월 예정인 최종 유치 지역 선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산학협력관 기공식 산학협력관과 기숙사가 지난 13일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4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기공식도 함께 열렸다. ▶관련기사 2면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대학 선도 산학협력단 지원 사업 선정

산학협력 이미지 상승 기대 ... 2년간 총 4억원 지원

산학협력팀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지원하는 대학 선도 TLO 지원 사업에서 주관 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대학은 산학 협력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우리대학 전체의 연구 능력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무적이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산학협력팀은 2년 간 총 4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변리사 등 전문 인력 추가와 공격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팀 자체의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이종태 단장은 "선도 TLO지원사업 선정이 우리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연구와 교육인프라 형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는 대학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을 기업에 이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산하의 산학협력팀이 일을 전담하고 있다. TLO지원 사업은 정부가 대학, 공공연구소, 지역 기술 이전 센터와 같은 기술 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TLO 지원 사업의 서울 지역 주관 대학은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7개 대학이다. 우리 대학은 2차 사업의 중간 평가를 거

쳐 서강대, 중앙대, 충북대와 함께 신규 주관 대학으로 진입했다.

대학 선도 TLO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1차로 2년간 시행했으며 2차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대학의 선도 TLO 지원 사업 산하에는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대진 테크노파크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산학협력팀 이창학 팀장은 "주관 대학 선정은 금전적인 지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대학의 연구 수준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대학 사업 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동국아트컴퍼니,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친정엄마와 2박 3일 등 수익사업 및 학생현장교육 성과 등이 선정 이유

우리대학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최한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돼 1년간 약 2억 5천만원의 지원받는다.

동국아트컴퍼니는 지난해 (주)IHQ와 함께 진행한 공연기획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반영돼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동국아트컴퍼니의 공연 사업에는 우리대학 연극학부 교수, 재학생(대학원),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공연기획·연출, 예산편성, 출연진·스태프 구성, 무대디자인, 무대기술 등 각 분야별 전공 교수들이 재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해 현장교육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이미 연극학부의 공연 제작 관련 8개 교과목을 현장

실습 교과목으로 연계하여 최대 6학점 인정을 해주는 등 공연사업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6개월 단위의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 학생에게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한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주)IHQ와 산학협력 공동교과목 '오디션 테크닉'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현장전문가의 강의 및 학생별 성적에 따라 현장 진출까지 연결되는 현장맞춤형 교과과정을 개설했다.

한편, 동국아트컴퍼니는 지난해 (주)IHQ와 3년간 45억원 규모의 공동제작사업을 함께 해 나가기로 계약했다. 또한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제작비는 (주)IHQ가 투자하며 연 단위로 공연수익을 정산해 우리

대학과 (주)IHQ가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다. 제작대행 수수료 또한 (주)IHQ가 별도로 지급하며, 지난해 계약체결 시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3년간 매년 1억원 동국아트컴퍼니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국아트컴퍼니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상연됐던 연극 '햄릿'의 국내 및 해외 공연 저작권을 이미 (주)도로시 뮤직에 판매했다. 가수 신승훈 콘서트의 서울 및 일본 5개 도시 투어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기획물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축제 컨설팅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우리대학, 서울시 인문 장학 17명 선정

우리대학이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장학증서 수여식에서 17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2009년 상반기 서울장학증서 수여식은 서울장학재단이 주최,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우리대학은 인문분야에서 총 16명, 과학분야에서 1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인문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서울대에 이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인문학 분야 장학생은 연 500만원씩 2년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과학분야 장학생은 1년에 600만원씩 2년간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날 수여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장원식 동문, 1억원 기부 약속

국제관 건립 및 본관 리모델링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인 장원식(정보관리학 92졸) 동문이 지난 20일 발전기금 1억원을 약속했다. 장원식 동문은 "현재의 내가 있

기까지 동국대학교의 도움이 컸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나눠 줄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기부취지를 밝혔다.

매년 천만원씩 기부되는 금액은 우리대학 국제관 건립 및 본관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신임 정각원장에 법타스님 취임



신임 정각원장에 신광수(법타) 스님이 16일자로 취임했다. 법타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를 역임 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지냈다.

본사 사령

◇ 임수습기자

- ▲ 김윤경 (불교학부 1)
- ▲ 이지연 (국어국문학과 1)
- ▲ 이슬비 (국어국문학과 1)
- ▲ 김수지 (중어중문학과 1)
- ▲ 서지은 (철학윤리문화학부 1)
- ▲ 김지민 (경제통상학부 1)
- ▲ 백선아 (불교미술학과 1)

- 이상 3월 30일자

- 1 지/면/안/내
- 2 성과평가 컨퍼런스
- 3 하숙·자취 실태조사
- 4 MB정부와 민주주의의 위기·복지
- 5 미륵사지 출토 유물 관련 세미나
- 6 녹두서점 탐방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 2. 23 ~ 3. 23

100만등달기금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강민구(불교신도, 3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변영하(학부생, 3만원) 백상현(불교신도, 2만원) 김병중(서울/직원, 1만원) 이상설(불교신도, 1만원)

신도,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원(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원) 최창림(서울/교수, 5만원) 김보경(불교신도, 3만원) 김지현(불교신도, 3만원) 박초생(동문, 3만원) 이금자(일반/기타, 3만원) 엄지은(동문, 2만원) 박래호(서울/직원, 1만원) 양한식(불교신도, 1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000원)

단위기금

자유기업원(기업/재단, 870만원) 법혜스님(경주/교수, 200만원) 오창린(경주/교수, 100만원) 한동식(동문, 100만원) 김계현(서울/직원, 10만원) 남경우(일반/기타, 10만원) 이석현(일반/직원, 10만원) 허천택(동문, 1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5만원) 김정호(서울/교수, 5만원) 박원주(서울/교수, 5만원) 심정신(주/기업/재단, 5만원) 박은숙(서울/교수, 5만원) 손순우(서울/교수, 5만원) 이관제(서울/교수, 5만원) 이원철(서울/교수, 5만원) 이현정(불교

현(동문, 15만원) (주)캐노나(기업/재단, 10만원) 강동욱(서울/교수, 10만원) 김변골굴밭(기업/재단, 10만원) 경주원목(기업/재단, 10만원) 계경목장(기업/재단, 10만원) 권동희(서울/교수, 10만원) 금강원목(학부생, 10만원) 김홍필(서울/직원, 10만원) 단강동원해매갈국수(기업/재단, 10만원) 동국주맥(기업/재단, 10만원) 박승중(서울/직원, 10만원) 백리향(기업/재단, 10만원) 부성식당(기업/재단, 10만원) 세종투어(기업/재단, 10만원) 신희광고아카데미(기업/재단, 10만원) 예명광고기획(기업/재단, 10만원) 원영상(서울/교수, 10만원) 원힐머니보습(기업/재단, 10만원) 월강(기업/재단, 10만원) 육부춘(기업/재단, 10만원) 이백스모아사무용가구(기업/재단, 10만원) 정화송이순두부(기업/재단, 10만원) 청하일식(기업/재단, 10만원) 초원심계탕(기업/재단, 10만원) 퍼시스울산전시장(기업/재단, 10만원) 한전참가자미회(기업/재단, 10만원) 함흥병면(기업/재단, 10만원) (주)경주귀빈여행사(기업/재단, 5만원) 김포은정회식(기업/재단, 5만원) 드림건설(기업/재단, 5만원) 귀하원정식(기업/재단, 5만원) 그린내원목(학부

기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신한은행 140-000-649193 SC제일은행 107-10-119210 농협 360-17-003822
- 인터넷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 접속 후 작성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3~5)

세제 혜택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절차

-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 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 3)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비처리

세제 혜택 내용

1. 개인 기부: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2. 법인 기부(조직회사법인 단체):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단, 2009년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3. 기부로 인한 연간 소득별 절세 효과(2008년도 기준) (단위: 원)

기부금	연간 소득 금액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1백만원	170,000	170,000	260,000	350,000	350,000
2백만원	340,000	340,000	520,000	650,000	700,000
3백만원	510,000	510,000	780,000	945,000	1,050,000
4백만원	684,250	680,000	1,040,000	1,195,000	1,400,000
5백만원	858,500	850,000	1,300,000	1,435,000	1,750,000
6백만원	1,032,750	1,020,000	1,560,000	1,685,000	2,100,000
7백만원	1,207,000	1,190,000	1,820,000	1,965,000	2,450,000
8백만원	1,381,250	1,360,000	2,080,000	2,215,000	2,800,000
9백만원	1,555,500	1,530,000	2,340,000	2,475,000	3,150,000
1천만원	1,729,750	1,700,000	2,600,000	2,735,000	3,500,000

▶ 2면에 계속

* 위 표는 1인 가족 기준이며,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가 자취·하숙 실태 <2> 뉴타운 개발과 민자 기숙사

우후죽순 대학가 뉴타운 개발, 비싼 민자 기숙사 학생 부담 가중

지난호 우리대학 주변 자취·하숙 실태 르포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타 대학 주변 자취 및 하숙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현재 타 대학 하숙·자취 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까지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중 대학가와 인접한 곳은 △길음·미아(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이문·휘경(경희대, 한국외대) △왕십리(한양대) △전농·답십리(서울시립대) △북아현(이화여대, 추계여대) △흑석(중앙대) 등 총 6곳이다.

800~9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뉴타운 선정 지역인 한국외대 주변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원룸의 경우 보증금 500~1,000만원에 월세 30~50만원을 일반적이다. 하숙비 또한 30~40만원을 호가해 과거에 비해 10만 원 이상 오른 상태다. 이문동에 위치한 B부동산의 경우 "뉴타운 개발로 인해 예전보다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른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상 한계가 대거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그럴듯한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법안만 제정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학생복지주택을 기숙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위해 건립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학생복지주택을 통해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명분을 앞세워 표면적인 대책이 난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주변 하숙 및 자취 밀집지역



YMCA 학생 주거실태 조사 하숙·자취생 40% 최소주거기준 미달

전·월세나 하숙, 고시원 거주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9.9㎡(3평)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법에 의거한 최저주거기준(12㎡)에 미달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YMCA '대학생 신촌지기'가 지난 1~2월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에서 대학에 다니는 전국 대학생 706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주거형태는 월세 자취가 37.2%로 가장 많았고 하숙 23.2%, 학교 기숙사 15%, 고시원 14.2%, 전세 자취는 8.2%였다.

하지만 주거 만족도는 전세가 59%로 제일 높았고, 학교 기숙사 46%, 월세 43%, 하숙 32%, 고시원은 18%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또 주거 면적을 기재한 응답자(503명)의 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 39%인 197명이 1인당 12㎡인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7월 주택법 개정 당시 법제화됐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 면적기준, 침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1인당 3평(9.9㎡) 미만인 곳에서 39%정도가 주거하고 있다. 주거환경별로 면적이 3평이 되지 않는 비율은 고시원 86%, 하숙 38%, 월세 자취 19%, 전세 자취 4%로 드러났다. 구조·성능·환경 등 다른 기준을 고려하면 이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대학생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대학생 주거 양극화 부르는 민자 기숙사 건립 붐

서울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뉴타운 주변 지역 대학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숙사 건립이다. 뉴타운 지역 주변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은 필수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민자 기숙사다.

민자 기숙사는 지난 2006년 건국대가 '쿨하우스'를 세운 후 잇달아 서강대, 명지대, 단국대 등이 민자 기숙사를 건설했다. 이외에도 우리대학과 숭실대, 경희대 등도 민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은 민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심각한 대학생 주거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대학 사업개발실 김규환 팀장은 "수입역이나 드는 기숙사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고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거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자 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 주거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대학의 생각과는 달리 대학가 주거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서강대 민자 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의 비용은 한 학기 6개월(2.28~8.21)간 272만원(2인실 기준·식비포함, 보증금 10만원 포함)에 이른다. 기존 기숙사인 '벨라르미노 학사'(117만원·4인실)는 물론, 주변 하숙집 비용(180~200만원 안팎)보다 높다. 게다가 1인실을 쓰려면 무려 418만원(식비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혼자 사용하는 원룸의 한 학기 월세(240~270만원)보다 비싼 수준이다.

헤어숍·패밀리레스토랑·택배사무소·문구점 등이 함께 입주해 있는 건국대 '쿨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숙사 한 학기 비용은 271만원(2인실 기준·식비포함, 1인실은 372만원)에 달하는 반면, 주변 하숙집의 방값은 150~180만원 수준이다.

민자 기숙사는 시설 면에서 타 주거에 비해 월등한 시설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준다. 올해 곤자가 국제학사에 입사한 1학년 엄 모양(국제문학계II)은 "시설 면에서 벨라르미노나 하숙·자취보다 낫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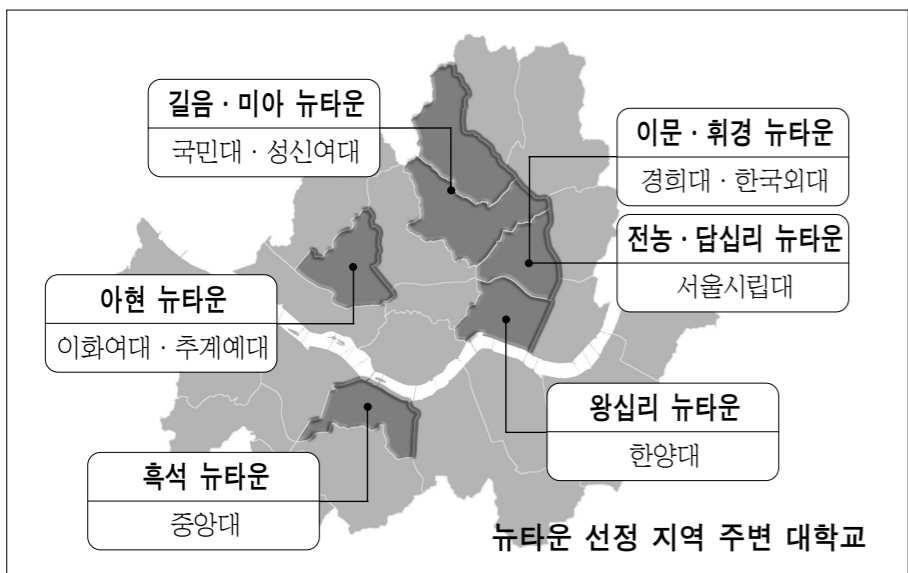
다음 학기에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 기숙사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 및 운영을 민간자본에 위탁해 수익형 민자 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BTO는 민간에서 시설을 건립한 후, 소유권은 대학에 넘기고 운영권은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서강대 기숙사 건립에 368억 원을 투자한 산은자산운용은 20년간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7.2%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대학과의 BTO 합작은 민간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사업이다. 안전하게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 세금면제혜택이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점 등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개발실 김규환 팀장은 "학교가 민자 업체와 최대한 가격을 조율하지만,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숙사비 책정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대학이 오랫동안 방치한 특수집단의 주택 문제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16%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 주택의 양적 공급 상황이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학생들은 사회적인 관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대학이 인재양성을 하려면 단순히 강의실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명)	기숙사수용률(%)	기숙사비(천원)
중앙대	242	705	15,994	4.4	780.0
이화여대	832	1,441	20,983	6.9	1,057.0
경희대	627	1,417	13,968	10.1	450.0
한국외대	323	712	9,431	7.5	985.0
서울시립대	309	602	8,906	6.8	520.0

만원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

만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영화 한편, 테이크아웃 커피2잔, 음악CD 1장. 그러나 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힘든 학우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원이 많은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만원의 행복이란?
1구좌당 1만원의 금액으로 동국대학교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구좌수에 관계없이 추가하실 수 있으며, 최소 1만원씩 참여시, 연간 12만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우편, 전화 및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2260-3300, 3794~5, 8992~3)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ilove.dongguk.edu/>)에서 2009년 3월 10일부터 참여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동문 찾기 캠페인

"내 마음의 고향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에서는 학교와 동문간의 협력과 동문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재 본교 학부와 대학원 출신 동문님의 연락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동문님의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동문 찾기 캠페인"을 통해 부족한 데이터를 충실히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모교와 소식이 닿지 않는 동문님을 알고 계신다면 "동문 찾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 찾기 캠페인

- 기 간 : 2009. 3. 6 ~ 3. 31
- 참여자격 : 동국가족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 등)
- 참여방법 :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ilove.dongguk.edu/>) 접속을 통해 캠페인 응모
- 시 상 : 동문 다수 추천자 시상
 - 최우수 : 최대 추천자 1명 (60만원)
 - 우수 : 2위~6위 5명 (30만원)
 - 장려 : 7위~16위 10명 (10만원)
- 결과발표 : 2009년 4월말

※ 현재 학교소식지를 받는 동문께서도 연락처가 바뀐 경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02)2260-3300, 3793~5, FAX: (02)2260-3796
<http://ilove.dongguk.edu>

입 학 처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아. 입학기획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자기추천 전형 입학생 여러분~, 개나리 피고 벚꽃 한창인 봄날에 우리 함께 만납시다."

자기추천 전형 입학생 여러분들과 입학기획팀 입학사정관들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대입 선발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활동했던 내용들, 자기추천 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시다. 우리 교육현실에서 곳곳하게 꿈을 이루어온 용기에 대해, 지금의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 ▶ **일정** : 2009년 4월 17일(금) 오후 4시 ~ 오후 6시 30분
- ▶ **장소** : 우리대학 본관 4층 대회의실
- ▶ **준비물** : 즐거운 마음과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
- ▶ **기타문의사항** : 입학기획팀 입학사정관 김경숙 (02-2260-3971)

사회서비스 고용창출로 실업 악순환 끊어야

시장만능주의에 의존한 능동적 복지 오히려 빈곤층은 사각지대 방치돼



글 쓰는 순서

1. 법치주의의 허구성 :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2. 경제 정책 :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의 'MB 노믹스'
3. 사회·복지 정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몰이해
4. 언론 정책 : 재갈물린 표현의 자유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근대화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경제성장)와 민주화(시민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근대화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책이 결정된 이후에야 정부예산 수립할 수 있었던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경제에서 경제규모 12위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하였고, 반공을 빌미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던 폭압적인 군사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하였던 지난 10년간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모순적인 시장주의적 복지

하지만 현 집권층은 이러한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부자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소득 밀집지역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부자들을 위해서는 각종 부동산 감세정책과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을 통해서 더욱 더 잘살게 해주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정부다면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기가 "땅을 너무 사랑해서"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

MB 정부의 반복적 행보는 영리외도 법인 도입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러한 친시장적 정책은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단지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게다가 전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목적을 가진 230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성 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사적인 펀드로 만들려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아동들을



저소득층의 공부방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부방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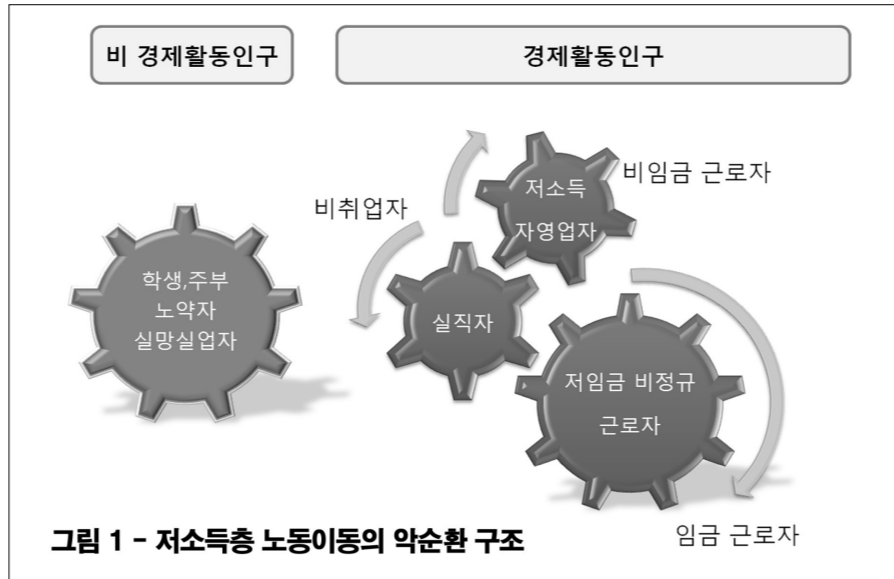


그림 1 - 저소득층 노동이동의 악순환 구조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육서비스도 양질의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시장화되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지만,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천박성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 위주로 28.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된 강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추경 전체 예산 중에서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보전 액수 11.2조원을 제외한다면, 추경 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나마 대부분이 6개월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나 한시적 소득보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전혀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 비정규, 한시적 일자리만으로는 근로자 자신이 생활의 방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예산안 발표 역시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불안정 노동시장 빈곤층양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그림 1>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 한국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한국인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올해는 경제위기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좋은 편잡은 직장(descend job)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한 마디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해이다.

이러한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평범한 청년 한국인은 편잡은 직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연속고용금지를 명시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다. 별다른 만족할 수가 없었던 한국인은 집안과 주위의 도움을 얻어서 소규모 자영업업을 창업하게 되는데, 경제위기의 한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불어 닥치는 법이라 얼마 안가서 투자한 돈도 갚지 못하는 채로 폐업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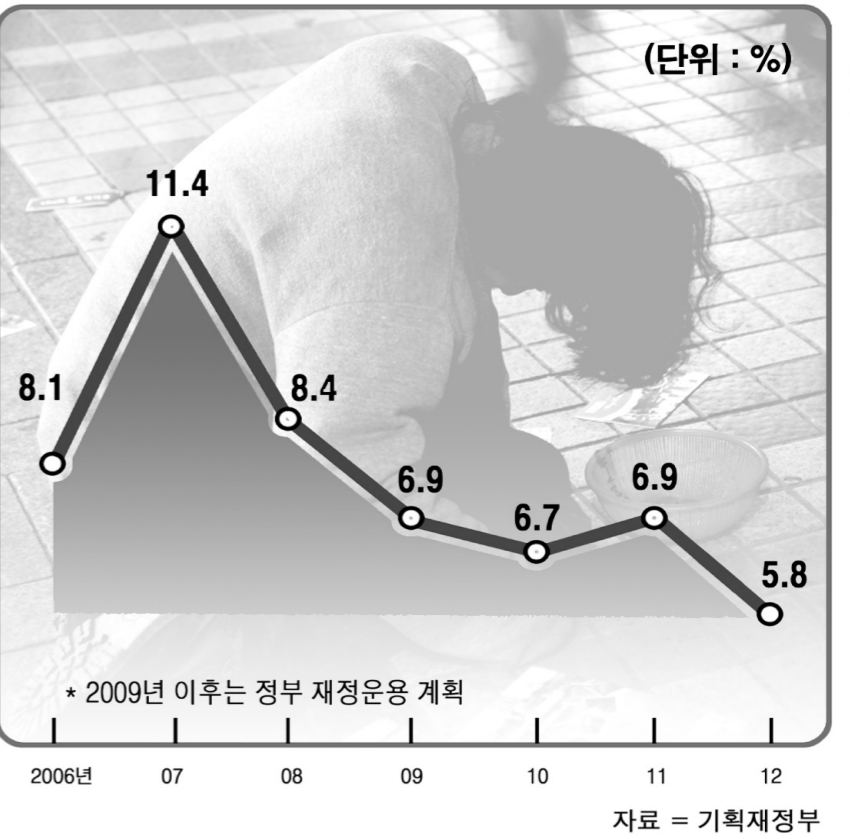
백수신세가 된 한국인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제시한 취업훈련을 받다가, 다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소위 '저임금 비정규직' ↔ '저소득 자영업' ↔ '실직'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악순환 구조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악순환 구조에서 몇 회전 하다가, 중·고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망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이 본인이 무능하거나 나태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가 그를 경제적 무능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사회서비스부문 고용 필요성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 명백하다.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전

사회복지 총 지출 증가율 (공적연금 제외)



체 고용인구 중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노르딕 국가인 노르웨이(34.2%), 덴마크(31.3%), 핀란드(27.3%)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 저소득 국가인 포르투갈(17.9%), 한국(12.6%), 그리고 터키(12.1%)는 사회복지 직종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중에서 특히 한국은 사회복지 부문의 고용비중은 낮은 반면에, 도시 비공식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03년 기준으로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의 경우, 미국은 7.1%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은 27%(2005년)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 근대적 산업부문의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진출로 인하여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고용구조를 볼 때, 사회복지 부문의 부족인원을 채우고,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감소시켜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 부문의 부족인원과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인 소득 양극화를 핵심으로 하는 계급양극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족의 해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노인양호보험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부문의 고용증진을 (1)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2)사회양극화 현상의 완화, 그리고

(3)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약자 위한 복지정책 돼야

얼마 전에 승합차 모녀 이야기가 온 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머니가 병들어 일할 수 없게 되고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어린 딸이 용기를 내어서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은 대통령께서는 은전을 내리셔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선정되었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미담이다.

승합차 모녀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을 받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나랏님의 은전'으로 어려운 사람이 구제되었다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행태는 제발 그만두자. 이들은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은사를 베푸시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당당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다.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생활의 방도를 찾으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년 상반기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모집

1. 학술지명 : 영어권문화연구(여름호)
2. 일반주제 : 인문학과 관련된 자유 주제
3. 용도 자격 : 교수, 연구원, 강사, 대학원생(박사과정) (단, 연구소장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도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용도 편수 : 0~2편 내외
5.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00~150매
6. 논문 마감일 : 2009년 5월 30일
7. 발간 예정일 : 2009년 7월 1일
8. 제출 방법 : 한글97(한글 97 이상)로 작성된 논문을 E-mail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9. 논문 제출처 : E-mail : gloomybk@hanmail.net (장보경 조교) 홈페이지 : cafe.daum.net/iecs
10. 문의처 : 100-715 서울 중구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연락처 : 02-2260-8530)

* 특별 혜택 : 향후 우수논문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단행본 출간 예정.(영어권문화연구소 총서 시리즈)

* 논문 작성 요령은 연구소 홈페이지내(cafe.daum.net/iecs)첨부 투고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1. 기간 : 2008.03.09 ~ 06.19
2. 일시 : 월 ~ 금, 오후 2~5시
3.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개인교습실
4.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 학 과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200대 기업인사관리자를 모시고 2009년 상반기 기업인사 관리자 초청특강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업비전, 채용 계획 및 전망, 선호 인재상, 자격요건, 취업전략, 채용 경험담, 질의응답
- 대상/인원 : 전학년/회당 100명
- 시간/장소 : 오후 4시 00분 ~ 6시 00분/과학관 세미나실
- 접수기간 : 특강 전 일주일
- 접수방법 : 본관 취업지원센터 방문접수(선착순)
- 문의 : 취업지원센터(T:2260-3054)

회 별	일 자	특 강 명	강 사 자	분 야
5회	3/31(화)	CJ 그룹 초청특강	박세희 인사팀 팀장	생명공학,미디어, 인프라
6회	4/2(목)	대우건설 초청특강	조주영 인사팀 과장	건설,토목
7회	4/7(화)	두산 초청특강	권형석 인사팀 과장	기계
8회	4/14(화)	현대오일뱅크 초청특강	변정석 인재개발 팀장	석유, 화학, 가스
9회	5/7(목)	대우증권 초청특강	유성준 인사팀 부장	증권
10회	5/12(화)	현대백화점 초청특강	백영준 인사팀 팀장	유통
11회	5/19(화)	대학생의 직업 능력개발	권대봉 직업능력개발팀장	연구소
12회	6/2(화)	한화그룹 초청특강	차덕현 인사팀 과장	제조,건설, 금융, 레저, 서비스

* 상기 일정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성공 취업을 위한 2009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9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목 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유형과 스킬을 교육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9-1학기	1차	2009.4.18(토) 08:40 ~ 18:20	40명	

다. 교육장소 : 명진관 A103강의실과 법학관 B253강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13:00	점심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5:00-18:00	인사담당실전 모의면접	- 실전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9. 3. 26(목)~4. 7(화)
* 선발인원(40명)의 2배수(8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방법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2009. 4. 8(수)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교육비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2260-3055로 문의바랍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 이야기는 허구?

미륵사지 건립주체에 관한 봉안기와 삼국유사의 서술 서로 달라



미륵사지서 출토된 금제 사리봉안기, 선화 공주가 아닌 사택씨가 미륵사지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유물이 출토된 미륵사지 석탑 사진



사택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이용현 연구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가 미륵사 사리 봉안기의 발견으로 학계의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우리대학 김상현(사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 월례 학술 세미나에서 "이제 사리봉안기가 발견돼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이상 역사로 선화공주를 미륵사지와 연관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교수는 "미륵사가 창건 당시 삼원 체제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으며, 봉안기 자체에서도 왕비 사택씨가 서탑 외에도 '가람'을 발원해 창건한 것으로 나오므로 선화공주가 미륵사 창건과 관련했다는 말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적어도 미륵사지와 선화공주를 역사로 연결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639년(무왕 40) 당시 사리를 봉안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사리봉안기와 13세기 일연에 의해 편찬된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를 따지면,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사리 봉안기 쪽 역사적 중요성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한국학중앙연구원원의 조경철 박사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3탑 3금당으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3원(院) 병립 가람인 미륵사가 적어도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창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또 "과거 미륵사지의 세 개의 탑 중 동원(東園)은 사택왕후가 건립하고 지금은 소실되고 있는 중원(中園)은 선화공주가 건립했을 수도 있다"며 미륵사와 선화공주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문화재청이 2002년부터 실시해온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지난 1월 석탑의 1층 심주 상면 중앙의 사리공으로부터 505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발굴됐기 때문이다. 발굴 과정에서 석탑의 금제 사리 봉안기(위 사진)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탑을 조성한 주체와 배경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미륵사

지에 대한 통념을 완벽히 깨버리는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리가 나왔던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무왕 68년에 지어진 거대한 석탑으로 학계에선 삼국유사의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설화를 받아들여 이 탑을 무왕의 부인인 선화공주가 건립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봉안기에선 탑을 지은 주체를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왕후, 좌평 사택적덕의 딸'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 유사와 봉안기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사리봉안기의 발견을 둘러싼 논란은 서강대 학술세미나 뿐이 아니었다.

지난 21일 국민대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용현 국립 부여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미륵사지 건립과 사택씨"란 논문에서 사택씨가 무왕 시기의 유력한 가문이었으며 무왕의 왕권과 정치적 기반을 지원해준 가문이었다고 밝혔다. 말미에 이 교수는

"삼국유사와 봉안기의 내용을 비교할 때 선화공주의 신라를 백제 유력 가문의 백제로 바꾸면 여러 가지가 들어맞는다"며 또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논란을 뒤돌아보면 삼국유사에 기록된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적어도 사리봉안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과연 삼국유사의 기록을 전적으로 부인할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연구가 더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화공주 이야기 뿐만 아니라 봉안기의 내용에 대한 당시 무왕의 가계나 왕권과 귀족과의 역할 관계, 정치와 밀접한 불교, 등 백제연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백제사 연구는 유물이나 사료부족으로 인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미륵사 사리봉안기 발견으로 백제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라진 제국 백제에 대한 관심이 견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3> 풀 하우스

이관수 교수의

상식을 뒤집는 책임기



풀 하우스

지은이 : 스티븐 제이 굴드
이명희 역
펴낸곳 : 사이언스북스

좋은 책은 때로는 양파와 같아서 껍질을 벗겨낼 때마다 싱싱한 속살이 또다시 드러난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풀하우스'도 그런 책이다.

일단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솜씨 덕분에 별 생각 없이 죽 읽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가 더 인기 있지만, 굴드의 글은 도킨스처럼 날선 문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은근히 교과서가 가르쳐준 바를 뒤집어 버리는 맛이랄! 생물학에 자주 등장했던 그림, 즉 작았던 말의 조상이 점점 더 큰 말로 '진화'하는 그림이 한마디로 뺨을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폭로하는 대목은 속을 푸근하게 풀어주는 해장국 같다. 게다가 굴드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더 이상 4할 타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따위의, 야구광들 밖에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의문들을 '진화의 방향'처럼 묵중하고 심각한 의문들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버린다.

그것도 온갖 기교를 쏟아 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상을 알기 쉽게 풀려가면서, 그렇게 풀려나갈 굴드의 답변을 응용해 사람들은 4할 타자가 사라진 이유는 프로 선수들의 수준이 극한에 가까워 올라갔기 때문이고, 진화란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라고 요약한다.

그런데, 다양성은 좋은 것이냐 다양성의 증가도 진보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 논의는 진짜 양파처럼 매운 맛이 독해진다. 굴드가 부인하는 '진보'는 어떤 능동적 원인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남쪽 창문 밖으로 풍광을 훑어뜨려보라. 풍광을 자주 떨어뜨려다 보면, 어쩌다 창문에서 멀리 굴러간 풍광들이 나온다. 이 모습을 두고 풍광들이 남쪽으로 '진보'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연히 제일 멀리 굴러간 풍광이, 풍광이란 분식 남쪽으로 진보하는 존재이니 자기가 풍광의 대표라고 우쭐대는 것이냐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스대는 일이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

풍광들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창문 바로 밑에 있듯이, 생물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단세포생물이고, 몇 십억 년에 걸쳐 생물계의 다양성이 증가한 일은 풍광 개수가 늘다보니 생긴 일 일뿐이다. 우리 인류는 집단 전체의 분포형태를 보지 않고, 눈에 띄는 극단적인 값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주 착각을 한다. 전체 분포 자체보다는 일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표 값이 편하고, 때로는 아주 유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표 중독은 엉뚱한 착각만 낳을 뿐이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인데, 굴드의 말마따나 이런 지표는 무의미할 때가 자주 있다. 굴드는 잔여 생존기간의 중간 값이 8개월에 불과한 병에 걸렸을 때, 생존기간의 전체 분포곡선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다. '괴짜 경제학'의 레빗도 각종 지표값으로 한 사람의 장래를 예측하는 일을 비웃지 않았던가.

좁게는 지표와 분포를, 넓게는 이미지와 실체를 헷갈리는 일은 단세포 생물들처럼 널리 퍼진 일이다. 그러나 삼십표 경제를 살리려 든다고 절망하지는 말자. 어쨌든 단세포 수준은 되니 말이다. 사람이 어찌 생겨났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 조건반사적으로 통념을 따르는 비참함을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풀 하우스'는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교양교육원 교수

제 4차 소통 포럼 '진보와 보수의 공유지대를 찾아서'

윤평중 교수 "통합은 객관성에 기초한 융합에서부터 가능"



소통 포럼에서 발제 중인 윤평중 교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수진영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의 공유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소통포럼 주최로 열린 '진보와 보수의 공유지대를 찾아서'에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지식사회가 당파성보다는 사실중심으로, 또 담론중심에서 융합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잉 정치화에서 한국 지식사회 최대의 과제는 객관적 사실의 존중에 있다"며 "객관적 관점의 결여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주관성을 부른다"고 말했다. 황우석 사태, 광우병 파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통합은 당파성에 치중한 정치적인 이념보다 사실과 객관성에 기초한 상호검증과 융합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보수가 반복주의적 정체성을 완화시켜야 만이 보수혁신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보수를 융어메는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퍼주기' '빨갱이' '잃어버린 10년' 등의 용어의 집착 같은 반복주의적 노력보다 남북화해시대에 맞는 행동으로 보수는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수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반복주의에만 매달려다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보수 뿐 아니라 진보에 대해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대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 때 진보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진보 내부의 명확한 구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통포럼은 전북대 강준만 교수, 서강대 원용진 교수, 동국대 조흥 교수 등이 좌와 우 간의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든 연구모임으로 이날 모임엔 우리대학 조흥 명예교수의 사회로 유창선 박사 겸 시 사평론가, 박성민, 민기희 대표, 조재열 시사인 기자, 변화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수님들의 안정적인 연구지원 체제의 일환으로, 교수님들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적시에 제공하는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구입 대상** : 본관이 소장하지 않은 외국도서 중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도서
- 2. 시행 시기** : 2009학년도 연중
- 3. 신청 방법** : 아래의 구입처(7번)에서 도서를 구입한 후 도서와 영수증을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담당 최일우, 교내 3447)으로 제출
- 4. 도서 처리** : 구입한 도서를 학술정보관리팀에 제출하면, 도서는 당일(오전 접수-오후 열람, 오후 접수-익일 오전 열람) 처리하여 대출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5. 대금 처리** : 구입도서 대금처리(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도 당일 처리하여 재무회계팀으로 해당 서류를 접수하므로 3-4일 이내 입금 처리함(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시 운송료 등 비용 전액 처리함).
- 6. 구입 금액 한도** : 인문, 사회분야는 500,000원(1회당), 자연분야는 1,000,000원(1회당)내에서 구입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협의바람)
- 7. 구입처** : 가. 외국 서점(현지 구입만 가능, 국내 지점은 제외) 나. 외국 화점(현지 구입) 다. 인터넷 서점 : 1) 국내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해외주문, 인터파크 해외주문, YES24 해외주문 2) 미국 : Amazon 등 3) 일본 : 紀伊國屋書店 - bookweb.kinokuniya.com.jp 등 4) 중국 : 中國書店 - http://www.zgsd.net, 風入松 - http://www.forestsong.com.cn 등
- 8. 기타** : 교수 연구도서 구입제도 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교내 3447, 담당 최일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009-1학기 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건물	층	자료실	요일 / 구분	
			평일	토요일/일요일
중앙도서관	3층	불교학자료실	09:00-21:00	09:00-17:00
	2층	대출반납실		
		멀티미디어실		
	1층	자연과학실		
	지하 1층	사회과학실		
지하 2층	인문과학실			
별관 열람실			06:00-24:00	
법학도서관	3층	단행본실	09:00-21:00	09:00-17:00 (일요일 휴관)
	2층	멀티미디어실		
	1층	참고자료실		
			24시간 개방	

- * 기간 : 2009. 3. 2(월) ~ 6. 19(금)
- *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은 일요일 휴관입니다.
- * 학기 중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시험기간 중 이용시간 안내는 별도로 공지 예정

중앙도서관

4월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영화상영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실 영화상영회를 개최 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간 : 2009.04.06 ~ 24
2. 일시 : 월 ~ 금요일, 14:00~
3.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 제8요일 등 15편

테마	날짜	영 화	국가	런타임
장애인의날, 아름다운 삶을 담은 영화	6일	제8요일/자코 반 도흐마엘	프랑스	118분
	7일	나의 왼발/짐 셰리단	영국	98분
	8일	오아시스/이창동	한국	132분
	9일	말아톤/정유형	한국	115분
법외의날, 법률영화	10일	프레스트 캠프 /로버트 자메키스	미국	142분
	13일	피고인/ 조나단 카프만	미국	110분
	14일	데드 맨 워킹/로빈스	미국	122분
거장의 명화 (구로사와 아키라)	15일	아버지의 이름으로/짐 셰리단	영국	133분
	16일	주여러브라이언 김슨	미국	120분
	17일	12인의 노한 사람들/앨리엄 프리드킨	미국	117분
	20일	라쇼몽/羅生門	일본	90분
	21일	살다(生きる)	일본	143분
	22일	7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	일본	205분
23일	란(亂)	일본	160분	
24일	카게무사(影武者)	일본	179분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표수 제공
-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

달하나천강에

중국어 표기의 경제학

1980년대 후반 중국 액션·노와르 영화의 대표적인 배우였던 주윤발(周潤發)은 흥행 보증수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성과 인기가 대단했다. 여학생들의 공책에는 어김없이 주윤발의 책받침이 꽃혀 있었고 그가 출연했던 우리나라의 한 음료수 CF는 지금도 화제가 되곤 한다.

이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훌쩍 넘어버린 그가 최근에는 공자(孔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에서 공자 역을 맡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성냥개비를 물고 무기를 든 모습에 익숙한 관객의 욕망에서는 그야말로 이미지의 대변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의 변신은 연기만이 아니다. '저우룬파'로 '개명'하고 신문지상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현행 중국어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법은 신해혁명(1911) 또는 5·4운동(1919) 이후의 현대 중국인들의 이름은 모두 중국어의 현실음을 반영한 원음주의에 따라 표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화란 미명하에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중국인 개명운동

한국에서 벌어진 중국인에 대한 대규모 '개명운동'은 인명을 넘어 '쓰촨(四川)'·'옌뎬(延邊)'·'스자좡(石家莊)' 등과 같이 지역·도시명, '취안톈통(全天通)'·'위안(元)화' 등과 같은 기업이름·경제 용어 등 거의 모든 고유명사로 확대되었다.

원음주의를 고수하는 외래어 표기법이 영어나 프랑스어 등과 같이 우리말·글과 전혀 다른 언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어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법만큼은 우리의 언어 및 문자 생활에 갖가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각종 외래어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우리말의 오염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경제 고려 안 돼

중국어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법은 우리말 내의 언어경제(linguistic

economy)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편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 고유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첸'·'벤'·'장'·'첸' 등처럼 우리의 일상 언어에는 거의 혹은 아예 없는 자모의 조합 형식이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말로 옮겨질 때 두배 넘게 늘어난 음절 수 등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가뜩이나 고달픈 한국인들의 눈·귀·입을 더욱 피로케 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말 한자음은 대략적으로 중국의 당(唐)·송(宋) 시기의 발음인데, 우리의 음운 체계 내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한자음도 우리말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앞으로 점차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한자어를 표기 역시 이에 근거하여 수정될 것이다.

중국어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음운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중국어 발음에 근거하여 중국어 고유명사

의 우리말 표기법을 매년 개정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말 표기법이 중국어의 음운 변화에 종속되는 언어사대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에 대한 새로운 표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기체계 확립 필요

한글은 외래어를 서사함에 있어서도 그 뛰어난 우수성이 입증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 속에 이미 정착된 자연스러운 한자음을 버리고, 우리말 사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중국어의 현실 원음을 적는데 남용되는 것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외국어를 원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편의 위주의 획일적·일방적 어문정책을 버려야 한다.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한자음을 중국어 고유명사를 적는 표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글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글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박석홍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보리수

약속의 공능(功能)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사회생활에서 약속이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개인 간의 약속이든 단체 간의 약속이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끝장난다.

사랑의 맹세가 깨지면 결혼이 파탄난다. 약속한 어음을 지불하지 못하면 기업이 부도난다. 모든 세상 일의 성공과 실패는 다 약속과 관계가 있다. 무엇이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약속 지키기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불경(경이아함 31권 역품)에 보면 아나뫼다(阿那律)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다가 결국 눈이 멀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는 석가족 출신의 귀족으로 부처님이 귀향했을 때 출가한 제자였다. 어느 날 오후 깜박 졸다가 부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수행자는 나라의 법이나 도둑이 가 빛쟁이가 두려워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음식과 옷을 위해 집을 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행복을 위해 출가했다. 그런 믿음으로 집을 나왔다면 오직 열심히 정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부처님과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했다.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기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니뵘다는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공부했다. 그러다가 눈이 멀었다. 그 대신 그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天眼)을 얻었다.

부처님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가 해진 옷을 꿰매려고 하자 대신 옷을 기워주기도 했다. 뒷날 그는 10대 제자 중 '천안제일'의 칭호를 들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모나 스승, 친구나 애인을 만나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마음의 약속'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벼운 사람, 못 믿을 사람이 된다.

비록 하찮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는 붉은 마음을 가져야 믿음을 얻는다. 그 믿음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약속의 공능(功能)이다.

약속의 공능을 믿지 않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남에게 한 약속이든 자신에게 한 약속이든 반드시 지켜야만 연애를 하든 공부를 하든 정치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다. 그게 싫다면 할 수 없지만.

동문칼럼

김인식과 김성한

조석규
국어국문학과 78졸
도서출판 해외달 대표



WBC 준결승전이 열린 다저스 스타디움에 우리 팀이 컷을 때 나는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결승전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지나간 결과일 뿐이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 국민 영웅들이 탄생했는데, 그 중심에는 동문 김성한 수석코치와 함께 노심초사하던 김인식 감독이 있었다. '독배'라고 모두 꺼리고 만류하던 자리. 그래서 당초에는 2라운드 진출도 걱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 때문에 그 자리를 선선히 받아들였다. 현역 코치진은 그 혼자뿐.

그러나 대회가 시작되자 그의 선수기용이나 교체 타임, 야수 위치 선정 등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추신수를 밀어붙일 때는 독심과 함께 신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메이저리거가 즐비했던 팀들은 코리아에게 야구가 더 이상 미국 경기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야구정신이 퇴색한 지금 야구가 여전히 아름다운 오락임을 알려주었다고 한국팀에 존경을 표했다.

감동과 행복을 준 그들을 떠올리면 한편으로 부끄러움이 드는데, 그건 지금까지 내게 지속가능한 행복감을 주었던 일

들이 내 개인사보다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 알마나 행복감을 주고 있을까, 하는 자책 때문이다. 김 감독처럼 전 국민은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으로부터 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낮추고 갖추는 일일 터. 그리고 나를 믿고 기본과 긍정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 김태균이나 봉준구, 박병이나 원더걸스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장 때 이치모를 거르지 않아 일이 터졌듯 필요하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사는 건 장거리 레이스라니 조금 많은 피할 일, 9회 말 투아웃에도 일어설지 않는가?

그래서 이득과 갖추었을 때 김 감독처럼 독배를 마다하지 않을 용기와 희생을 펼칠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 아닐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림자이거나 유명인 이 나라에서 특히,

언덕만 가파르지 비버를 데는 별로 없는 학교다. 한때 풍대를 위해 탐 흘렀다고 동문도 아닌 김 감독에 기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처럼 학교가 당신에게 기대게 하라.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그거 또한 제법 행복한 일 아닐까.

기고

한·일 언론의 차이

사쿠라이 노리오
법학과·북한학과 청강생
일본 산케이 신문기자



나는 일본 산케이 신문사 기자다. 연수차 한국으로 파견되어 이번 학기부터 1년 동국대학교 법학과와 북한학부에 다니게 됐다.

대학원을 수료한지 9년이 지나고서,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 허무하루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역시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차이에 종종 놀라기도 한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제작과정이 달랐으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나는 사회부 소속이다. 사회부는 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취급하는데, 각 신문사마다 특종취재일기가 치열한 부서이기도 하다.

일본의 일간지에서는 사건 사고를 취급하는 '사회면'이 신문을 뒤에서 펼쳤을 때 최초의 몇 페이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뉴스는 1면에서 3면까지도 게재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구독하기 시작한 신문을 펼치면 사건 사고를 게재하는 페이지는 4~5면 정도다. 주로 정치면이 1면을 장식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여배우의 자살과 접대강요 의혹을 둘러싼 보도가 경쟁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신문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경찰서에서 기자와 카메라맨이 둘러싸고 인터뷰하는 광경도 놀랍다. 일본에서는 기자가 체포된 용의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용의자의 해명을 보도할까? 그것은 기자가 아침저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거나 출근하는 경찰관에게 용의자의 공술을 간접적으로 탐문하는 것이다.

"요우치 아사가케(夜討ち) 鞠?": 취재기자가 정보를 얻고자 한밤중이나 새벽에 상대편 집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해서 기자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할뿐더러, 용의자에게 직접 캐내는 것에 비해 어떻게든 경찰관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찰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

강호순의 얼굴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흉악사건의 용의자 얼굴 공개는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곤 주저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 보도와 인권의 배려에서 한일 보도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한국이 인간존중에서는 낫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과 일본은 달랐으면서도 다소 다르다. 남은 수확기간도 한일간의 차이점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세상돋보기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고 싶어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청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불러온다"는 논란 속에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임 당한 7명의 선생님 중 한 분인 박수영 선생님은 매일 학교 앞에서 외롭게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워나갈 날은 언제쯤 찾아올까?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2009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모전과 특강을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riting.dongguk.edu / TEL : 2260-3380 FAX : 2260-3385

생각하는 코끼리
想像예찬,
2009-1 동국 글쓰기 공모전

사고의 향연
思考봉치,
제3회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제4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대상 | 2008년 2학기 / 2009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 시상부문 | 감상문(독서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일반보고서(그 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9명 각 100,000원

제3회 동국 독서와 글쓰기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부문 | 자유부문 / 교양부문 부문별 도서 목록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 응모형식 | 독서감상문(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5명 각 100,000원
- 기념품 |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주머니 파일)을 증정합니다.

- 용모기간 | 2009년 4월 1일 ~ 6월 12일
- 용모방법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결과발표 | 2009년 6월 중
- 문의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전화 번호: 2260-3380)
- 기 타 | 제출된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우수보고서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도 기입)]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취업글쓰기 상담, 일반보고서 상담, 보고서집중 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udri.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2009년 1학기 글쓰기 아카데미

- 강 좌
●일반 보고서 작성법 | 수 17:00-19:00 조형래(국어국문학과 강사)
-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 수 16:00-18:00 최윤근(한국어교육센터 전임강사)
- 취업 글쓰기 특강 | 수 17:00-19:00 하성란(국어국문학과 강사)
-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 목 17:00-19:00 이철호(문화체육센터 전임연구원)

강의기간

2009년 3월 18일(수) ~ 4월 10일(목) *4주과정 / 강좌당 주1회 2시간(총 8시간)

기 타

강의계획서 및 강의실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됩니다. 글쓰기 아카데미 참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공통사항 : 노트, 주머니파일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수강자 :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핸드북
*취업 글쓰기 특강 수강자 : 취업 글쓰기 길라잡이

신청기간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접수 이메일 : babyb-boy@hanmail.net)
■등록기간 | 2009년 3월 2일(월) ~ 2008년 3월 13일(금)
■신청대상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수강료 | 각 강좌당 20명 선착순 마감 / 수강 신청시 수강료 10,000원 납부(3/4 출석시 환불) * 수강 신청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학과, 학번,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강사명]

논단

대학입학사정관제와 새로운 입시규범

대학입시자화하는 대학, 고교, 학부모, 그리고 정부가 상대방에 대한 감압과 책임전가를 멈추고 차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점수만이 정답 아니다

진정한 대학 입시자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의 규범 위에 전문성과 대학의 국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규범이 부가되어야 한다.

의 성격은 총점 합산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것은 정성평가 결과도 점수로 수량화한다. 여기에서는 엄격한 반상 제도의 틀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핵심

새로운 입시규범의 총아는 대학입학사정관제다.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은 전문적 평가, 입체적 평가, 대학의 명예를 건 책임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 입학사정관제는 논리적으로 대학의 자율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별대학의 입시제도에 개입해 온 것은 그것이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입시사정관의 임무는 양으로 표현된 수능과 내신점수를 지원자의 성장배경과 학습 환경을 살펴 재해석하고, 다양한 보조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정성평가요 질적인 평가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대학의 자발적인 요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대학입시규제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등급제가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키자 그 변별력에 크게 의존해 왔던 대학들이 변별력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논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필요의 연장선 위에서 입시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이다.



박부권
사법대학 교육학과 교수

선발 기준 명확해야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이 입체적, 전문적 판단을 회피해 온 것은 거기에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것에 개입할지도 모르는 임의성과 자의성, 연줄과 정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사교육도 뿌리 뽑고 입시부정도 막을 수 있는 마술지팡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은 "매년 입시를 다르게 하면 사교육이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과외하지 않은 "원석"을 찾아가는 경로, 방법, 기준들을 카이스트는 명확히 해야 한다.

사설

언론인 구속은 민주주의의 죽음

이명박 정권 아래 언론, 나아가 민주주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또 다시 언론통제다.

YTN 노조위원장이었던 노종면 씨가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MBC PD수첩의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준근 PD가 체포됐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사회통합과 정의실현을 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PD수첩의 광우병 소 관련 보도도 이러한 부분적인 잘못된 사실전달이 검찰수사에 발미가 됐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고개 숙여 용서를 빈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인수된 수사 팀장은 PD수첩의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검찰에서 물러났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시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YTN의 사장은 대통령의 측근이 됐고 국민의 방송임을 자처하는 KBS는 보신각 타종행사의 현장을 지켰다.

정부는 언론통제 시도는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 정부가 시도하려는 정책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감세정책, 대운하 등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상충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참언론이 사라진다면 국민의 눈과 귀는 어디로 향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얘기할 것인가.

만평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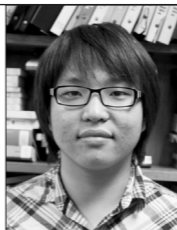
메아리

한사람의 열거보다, 열사람의 한거

▲"서울생활 적응하기 참 힘드네요. 부모님, 친구가 그리기도 하지만 의지할 만한 친구, 선배가 없다는 현실이 슬퍼요" 고향 후배가 상담을 해 왔다.

유도했다. 대학들이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위해 변화의 돌파구로 학부제를 택하게 된 것이다.

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저마다 자기 목표를 향해 달리기만 한다. 어떤 이는 토익학원에서, 어떤 이는 해외에서 나름의 달리기를 준비한다.



정동훈 편집장
gd1226@dongguk.edu

다. 우리는 서로에게 회망이며 버팀목일 수 있지 않을까.

▲4·19 등반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등반대회지만 4·19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새기는 이는 몇이나 될까.

80년대 민주화 운동 요람, 녹두서점을 찾아

민주화 열기 사라진 대학가 서점 '경영위기'

공동체 위한 책읽기보다 개인주의 독서 풍토 아쉬워



‘녹두서점, 녹두 사거리’ 우리대학 후문 주변은 유독 ‘녹두’와 관련된 지명과 상호가 많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이랬다. 녹두서점의 주인장(이을상·정의 91살)에 따르면 녹두서점은 창립자의 고향 정읍이 낳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조선 후기 부정 부패한 관리들에 맞서 농민들을 대변해 농민봉기에 앞장섰던 전봉준 장군. 녹두서점의 의미는 그의 기백을 본받아 군부

독재에 맞서 지식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이 같은 뜻을 지닌 녹두서점은 지난 1985년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때 만들어진 사회과학서점이다. 사회과학서점이란 정치·경제·역사·학예 등 인간과 인류 문화에 관한 정신과학과 관련한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창립당시인 80년대에는 이러한 사회과학서적 대부분이 금서로 지정됐다. 녹두서점은 당시 운동권 학

생들이 연합하여 만든 서점으로 법적 제재를 감수하고 금서의 유통 및 운동권 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1985년 개업당시 금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에겐 녹두서점은 타는 목마름으로 지식을 갈망하는 샘물과 같은 장소였다. 녹두서점은 창작과비평, 문학과 사회, 역사비평 등의 계간지 및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다루던 유인물 그리고 정치, 사회, 철학 관련 서적만을 취급하였다. 당시 금서로 분류됐던 서적들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 유물론, 철학의 이해 등이 있다. 녹두서점에서 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금서를 유통했던 이유는 인터넷이나 정보고한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인문사회과학서점이 아니면 금서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현재 녹두서점의 사장은 인문사회과학서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 인문사회과학서점들은 경찰의 감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책을 수거 당하는 일이 있어도 지식의 전달이란 막중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녹두서점은 금서의 유통뿐만 아니라 당시 운동권 졸업생 및 재학생을 이어주는 사랑방 역할도 하였다. 지하 매장에 있는 테이블에서 군부정권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휴대전화 가 없던 시절 서점 안 메모판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학생운동의 일정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학생운동에서 개인적

인 문제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사회과학서점들은 점차 쇠퇴해 갔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서적 판매의 경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던 인문사회과학서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녹두서점을 비롯해 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성균관대 앞 ‘플루질’ 등 몇몇 사회과학서점들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녹두서점에서는 이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리지적립이나 할인을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서적에 대한 수요가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율이 감소하여 서점을 찾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녹두서점은 더 큰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과거 녹두서점의 지하 매장에 몰래 숨어 학구열에 불타 금서를 읽으며 마음 졸이던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전공 서적을 읽으며 자신들만의 미래를 위한 독서 아닌 독서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미래지향주의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개인들의 전공과 큰 관련이 없는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고 결국은 독자 아닌 독서만이 존재하는 보수적 독서문화만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녹두서점 창립 25주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전공 뿐만 아니라 사회, 철학, 인문사회와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유지나 교수의 독립 영화 이야기

<2> '워낭소리'



독립영화, 그것도 저예산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역사상 최다 관객에게 감동을 준 영화. 바로 '워낭소리'다. 지금 추세로 보건대 300만, 아마도 그 이상 관객 돌파가 예상되는 이 영화의 성과는 독특한 감동 때문이다. 이를테면 80여 평생 한결 같이 소와 함께 농사를 지어온 할아버지의 (실은 소먹이를 위한) 유기농법, 어느 소와 달리 놀랍게도 40여생을 살아온 소, 절룩대면서도 달구지를 끌며 할아버지와 한 팀이 되어 농사짓는 소의 의연함. 말없이 이심전심으로 소통하는 할아버지와 소가 혼연일체가 되어 늙어가는 소가 인류학적 화석같다. 고루하기보다는 고고한 의연함, 추레하기보다는

곳곳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편하게 돈벌기를 부추기는 세상살이 흐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런 것은 거들떠도 안 본 채 본디 해오던 농사일,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할아버지와 소, 소의 비틀어진 굽은 다리와 가늘고 휘어진 채 상체난 할아버지의 다리는 서로

사람과 사랑을 울리는 '워낭소리'

에게 의지하며 완벽한 한 쌍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한 쌍의 일상을 수년간 들여다 보노라면 분명 감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렇다. 여기에서 한 쌍은 할아버지와 소이다. 그래서 뒤따라다끼리를 하며 재래농법에 허리가 휘어버린 할머니는 늘 투덜거린다. 남들은 다 기계도 쓰고 농약도 쓰는데, 고집스레 손과 유기농에 의존하는 영감이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영감은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소까지 돌보는 자신을 소만큼 돌보지 않기에 내놓고 질투 섞인 감정을 토로한다. 그런 그녀의 잔소리는 세상의 시선을 반영하는 동시에 적막한 다큐드라마에 유머와 감칠맛을 선사한다.

다큐의 미덕이 사실 그 자체의 진정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다양하고 창의적인 다큐들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워낭소리'처럼 사실주의적인 다큐에선 꾸미지 않은 사실 자체는 여전히 딱딱하다. 그런 점에서 예리하게 보면 집히는 연출 흔적이 거슬리기도 한다. 이를테면 소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워낭이 다큐의 목적인 주제가 진정성을 담보하기에 커다란 흠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이 영화의 미덕과 감동의 선에 결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이 영화의 흥행 성공 자체가 뉴스가 되어 버린 고무적 현실에서 깨닫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 하나, 바로 영화는 돈의 규모로 질이 보장되지 않는 진정성에 패를 건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TIP-

마지막에 이 다큐를 이 땅의 아버지와 소에게 받들다, 라고 한 헌사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잔소리꾼에 불과해 밀려난 할머니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서운함을 주었다고 한다. 그녀의 존재는 영화의 웃음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했건만....



중앙미드필더, 축구부 주장 변영민 선수

"확실한 팀 조율로 정확한 팀플레이 보여주겠다"

"패기, 근성으로 올 시즌 우승 하겠습니" 올 시즌의 우승은 물론 졸업 후 프로팀의 에이스 선수까지 꿈꾸는 축구부 주장 변영민 선수. 변영민 선수는 올해 4학년으로 축구부에선 없어선 안 될 주축 선수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부에서 활동했던 변영민 선수는 이젠 대학 마지막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는 팀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다른 선수들보다 그라운드에서 볼을 많이 다룬다. 또한 정확한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변영민 선수에게 가장 알맞은 포지션

이다. 주장으로서 팀원들 간의 조율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그에게 말이다.

변영민 선수에게 축구는 말 그대로 인생 전부다. 축구를 하며 꿈을 키웠고 축구를 통해 꿈을 좇는 그에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찾아온 슬럼프는 변영민에게 있어 실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슬럼프에 빠졌을 땐 축구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인생의 목표를 축구로 잡은 나였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했다"며 "그런 훈련을 통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다"

고 변영민 선수는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변영민 선수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동시설의 개선. 그가 운동시설의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대학에 인조 잔디 구장이 없어 다른 학교의 잔디구장을 빌려 훈련을 하는 점이 팀 우승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 변영민 선수의 좌우명처럼 항상 최선을 다한 그에게 올 시즌은 우승트로피에 입맞춤하리라 본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금주의 DUBS

장진혁의 Sing a Song



청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오디오의 한계에 '보이는 라디오'는 좋은 대안이다. 'Sing a Song'이라는 노래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함께 하는 방송과 더불어, 오디오의 한계를 보완한다.

본 영상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www.dubscast.com)를 통해 볼 수 있다.

PD 최이라 / ENG 김수인, 한규태 / ANN 장진혁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정각원 토요일법회

저명한 불교 화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이 불법의 진수를 생동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법과 깨어 있는 생활법문은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대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4	4(월·9)	생활법회	안도스님	전·조계종 교육원장
	11(월·16)	불교와 정치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18(월·23)	불교와 사회복지	상덕스님	목수중합사회복지관장
	25(월·1)	불교와 경영의 지혜	유필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5	2(월·8)	휴회	※ 부처님 오신 날 (통속법요식)	
	9(월·15)	생활법회	창고스님	한미음선원
	16(월·22)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23(월·29)	밀교사상의 이해	서윤걸	불교대학 명예교수
6	30(월·7)	금강경과 공자상	목종배	불교대학 명예교수
	6(월·14)	생활법회	정득스님	선다임/불교방송 진행
	13(월·21)	불교와 연극	강부지	탈린트, 영화배우
	20(월·28)	붓디의 홍승, 명상	레와미스님	수행공동체 제파와니
7	27(월·5)	불교 홍포의 생활화	박우덕	명상대학 교수(광교회사 웰컴 시장)
	4(월·12)	생활법회	현진스님	서울 여의도 포교회장
	11(월·19)	스리랑카 불교	정준영	불교대학 강사
	18(월·26)	불교의 체계적 이해	권기중	불교대학 명예교수
8	25(월·4)	불교와 법	정홍상	법과대학 교수(학장)
	1(월·11)	생활법회	지광스님	능인선원 원장
	8(월·18)	붓디의 우주관	이시우	전·서울대 교수
	15(월·25)	근원대의 불교	이덕진	창원전통대학 교수
	22(월·3)	불교의 예술	이문택	예술대학 교수(서울예술단 대표감독)
	28(월·10)	불교의 철학적 사유	김형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불교대강좌 안내

- ◆ 불교 입문반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강의실
 - 대상 : 불교를 처음 접하는 누구나
- ◆ 불교 성전반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강의실
 - 대상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불자
- ◆ 불교 경전반(신규개설)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명상실
 - 대상 : 경전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싶은 불자
- ◆ 어린이 불교영어 법회(신규개설)
 - 시간 :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명상실
 - 대상 : 초등학교(4,5,6학년)
- ◆ 삼천배 철야정진
 - 시간 :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8시30분 ~ (침야)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동참 희망자 누구나

정각원 연락처
02)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오천원의 나눔 두배의 기쁨' 연등달기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각원에서는 전 동국인 한등 달기를 기원하며, 교정 곳곳이 동국인 동참 발원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소원발원 연등은 '부모님 건강 기원 등' '학업성취의 등' '화목한 가족을 위한 등' '학우간 우정의 등' '사랑 성취의 등' 달기를 아래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원의 나눔 두배의 기쁨' 연등은 학우들이 소원도 기원하고 장학금도 마련하는 두배의 기쁨을 가득 담은 연등 달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아진 '두배의 기쁨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마련되어 전액 학우들에게 전달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연등 동참금 : 5천원

※ 연등접수처

- 현장 접수기간 및 장소 : 2009. 4. 6(월) ~ 4. 24(금) 도서관 앞 11:00~15:00
- 정각원 사무실 방문 접수 : 2009. 4. 6(월) ~ 5. 2(토) 09:00~17:00

※ 연락처 : 정각원 사무실 ☎ 2260-3016-8

※ 장학금 관련 사항은 추후 불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2009년 상반기)

정 각 원